진심으로 자기한테 자기가 미쳐야 합니다

☞ A17면에서 계속

용광로에 넣듯이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찰나 되는 것도 찰나라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가고 오는 것,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남도 그렇고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니 공했단 얘기죠. 그것을 현실로써 널리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나와 상대, 이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으로 뭉쳐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혜가 생기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집 안에 있다고 해서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가깝고 멀고가 없습니다. 저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탐험할 수도 있는 심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내가 용광로에 넣듯이 과거의 업을, 얽히고설킨 인과를, 악업 선업 지은 거를 다, 오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전자에 한 것이 현실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번갈아 가면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겁니다. 안에서 솟아 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기복으로만 자꾸 나간다면 공덕도 없거니와 이익도 없고 또 세세생생에 나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체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악업 선업을 다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또 '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모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의식만 없으면 송장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수십억 마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선업 악업 지은 데서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를 통해서 바로 소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중추 또는 척수 이런 데로, 양쪽에 마이크 세워 놓았듯이 세워 놓은 데서 척수 자체에서 중추를 끼고 도는 그런, 가장자리 양쪽에 붙은 것이 바로 전체를 통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말로 할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잘돼서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아유, 참 감사하구나.' 이러는 게 그냥 놓는 겁니다. '내 주인공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게 놓는 겁니다. 또 안됐으면 '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놓는 겁니다, 또.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왜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창살 없는 감옥에다 자기를 넣고 옹쳐매니까 나는 되풀이하는 겁니다. 마음이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도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당신 마음으로 옹쳐매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 놓는 게 고고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들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왔다 혼자 가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섯 가지는 대신 못 해 준다고요. 똥 누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아픈 거, 이런 거는 대신 못 해 줘요.

여러분한테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하다면 나도 요만큼밖에 얘기 못 해요. 여러분 마음이 드럼통만 하다면 드럼통에 담길 말을 하게 되죠. 바다 같다면 더 말할 거 없이 함이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가고 옴이 없이 "허허, 물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을꼬? 배가 없는데 탈 게 어디 있으며 건너갈 곳이 없는데 건너갈 게 어디 있나, 내가 공했는데." 아, 이런 말들로 쭉 법문이 돌아가죠?

그런데 수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 한 번 잘못 쓰고 행한 번 잘못해 가지고 백 번을 고생을 하고 백 마디를 해야 하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착을 둘 걸 둬야지 이 몸뚱이도 내 집이란 말입니다. 내 집에도 착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런 것에 착을 두지 마라. 내 집까지도 착을 두지 마라." 왜? 평생 살다가 내 집을 떠날 때 어떻게 이걸 두고 떠나느냐 이거죠. 착을 두면 이 집을 떠나지 못해서 3년이고 4년이고 콩깍지 안 떨어져서 억지로 떼듯이 그렇게 아픔을 당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착을 두지 않는다면 내일 가든지 모레 가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콩이 다 익었으면 훌떡 까지듯이 건드리기만 해도 까지죠. 그런데 다른 데 착을 둔다면 평생 살던 이 몸뚱이의 착은 어찌 떼시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이 생활선이며 그냥 행선입니다. 화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뚱이를 화두로 생각하십시오. 화두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남한테서 받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냥 저절로 생겨요. 이 몸뚱이가 난 것이 태초요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도 되고 화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인과응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쳐서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고덩어리다 했으니 여러분이 그 고덩어리를 녹여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살든지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과 살든지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 살든지 사장으로 살든지, 선생님으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막론하고 각자 여러분의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남한테 전가를 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놈이 잘못해 가지고 집안이 그냥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부모가 성가시면 "아이구! 저놈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러거든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체가 다 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 부처 노릇을 하시려면 오늘부터라도
> 그 하치않은 거 가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 성내지 말고 좋게 사세요.

여러분, 저 상점에 가 보십시오. 깡통은 깡통전에 깡통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은 대로 차원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인연이 바로 그런 것이고 부부지간도 인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깡통끼리 만나니까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죠? 소리가 납니다. '넝마는 넝마전에 모여 있고' 하는 그 차원이라면 그것끼리 또 모입니다. 그러니 서로 고생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그냥 욕하고 때리고 온통 '이년 저년, 이놈 저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온통 이 야단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아수라장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 몸뚱이로 태어나가지고 철모를 때 빼고 잘 때 빼고 늙었을 때 빼면 몇 푼어치나 산다고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즐겁고 패기 있고 자유스럽게, 좋으면 껄껄 웃어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참 이상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말입니다. 그걸 보면 그냥 난 우스워 죽겠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구요, 어떤 때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차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소리가 그렇게 퍼져 나오지 않느냐, 울려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소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도량이 아닌 데가 하나도 없고 도인 없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오면서 보니까 네 살 먹은 애가 차에 치여 죽지 않으려고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고것도 도인이더라고요, 하하하.

여러분! 글쎄, 생각해 보세요. 개도 불성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해도 있는 거고 있다고 해도 없는 거고, 사람에 따라 차원에 따라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도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리저리 둘러보고선 차가 오니까 딱 서는 거예요. 그러곤 차가 딱 지나가니까 쏜살같이 건너가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개도 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부처 노릇을 하시려면 오늘부터라도 그 하치않은 거 가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좋게 사세요.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여보! 당신 오늘 얼마나 노고가 많았소." 하고 웃고 들어오면 그냥 미안하고 그래서 '여보 당신, 참 얼마나 일하시느라고 애썼느냐' 하고 이렇게 말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러고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나오지요. "아니, 뭐?" 이렇게, 하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실랑이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못 배워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못 살아요. 자유스럽게 살아야, 먹을 것에도 착을 두지 않아야 들어와요. 돈도 착을 두고 가지려고 애를 쓰면 자꾸 달아나가요. 병고도 탁 놓고 '네가 업보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모두 뭉치게 한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아, 이러고 탁 놓으니까 이게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구, 난 내 그릇이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달아나가거든요.

그전에 이런 얘기 한 예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감기를 앓았는데 너무 오래 앓았어요. 인제 죽을병이 되어서 의사들도 다 괴질이라나 그러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아들인데 그냥 하도 병이 안 떨어지고 애를 쓰니까 스님이 오시자 여쭤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신네 나무 패는 모탕 있죠? 도끼하고."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도끼를 들고 그놈 좀 이리로 내오라고 그러거든요, 허허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소? 아, 그놈 내오라고 그러니. "어서 나오너라. 스님이 나오라고 하신다." 해서 나오니까 그놈 모가지를 그냥 모탕에다 턱 놓고 "이놈, 감히 어디라고 네가 부처님 앞에 붙어서 이러느냐!" 이러면서 그 모탕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그냥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여기 와서 그걸로 인해서 얻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뚝배기가 깨지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뚝배기를 들고 얼른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아들한테 뚝배기를 씌워 놨거든요. 뚝배기를 씌워 놔야 병을 앓아서 내가 얻어먹거든요. 그래 뚝배기를 벗겨 가지고 얼른 도망을 가니까 그 병이 바로 낫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좀 내버리세요, 네? 죽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내일 죽은들 어떻고 모레 죽은들 어떠리. 좀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떠리.' 아, 이렇게 좀 하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리고 산다면 그냥 좋은 밥에 좋은 옷에 화목한 가정에, 참스러운 마음에서 이리로 가도 좋고 저리로 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덩실덩실 춤을 춰도 다 못 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이 "저 중 미쳤어." 이럴까 봐 춤을 못 추지, 허허허.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저 중 미쳤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 이 공부 하는 데 미쳤다는 소리 한마디 듣지 않고는 공부 못 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심으로써 자기한테 자기가 미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길잡이한테는 지혜를 구하고자 따르는 거고 자기를 발견하려면 자기를 믿어야만 됩니다. 만날 여러분이 기복으로 끄달리고 귀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귀신 짓을 하지 않는데 어찌 귀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진짜로 아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되는 거 없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0월 1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